

편집 후기



한 호가 발간되고 뒤돌아볼 틈도 없이 다음호 발간준비는 계속된다.

한권의 책이 발간되기까지 그 숭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독자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편집자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들어 「방재와보험」을 찾는 독자와 기증의뢰 신청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기도 한다.

이번 봄호에서는 지난해 인도와 멕시코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로 최근 우리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스사고의 문제점과 안전대책에 대한 각계의 견해를 밝히는 특집을 비롯하여 산업체의 위험관리와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봄호 제작을 위해 옥고를 서슴치 않고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애독자여러분의 성원에도 함께 감사를 드린다. 〈洪〉

따사로운 봄볕이 앞뜰 깊숙이 찾아들고 훈훈한 바람이 모든이의 마음을 활짝 열재하는 양춘가절. 微物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을 일새없이 계속하는 봄.

지난 1년의 피로함을 보람으로 매듭짓고 모든 업무가 새롭게 시작되는 4월은 우리에게 부푼 희망과 밝은 내일을 약속해 주는 기대되는 달이기도 하다.

『소나무는 천년을 살다가도 썩어가지만 무궁화는 하루만 살아도 스스로 영화롭구려』라는 唐대 白居易의 시한 구절이 단혔던 마음의 창을 두드린다.

모든 일의 성패와 삶의 행·불행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의연하게 생활해 나간다면 가정과 직장이 모두 화목, 번창할 것이 분명하다.

새봄의 따스한 햇살과 더불어 지령을 거듭해 가고있는 「방災와 保險」이 일선 독자들의 생활속에 자리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더욱 새롭고 알차게 엮어가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宋〉

지난해 처음으로 「방재와보험」과 인연을 맺었고 이제 두번째, 첫번째보다 두번째가 훨씬 어려운 것은 무엇때문일까?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오히려 아쉬움을 더 남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은 뿌듯한 마음도 있고 좀더 나은 다음호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趙〉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 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내용

-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콩트 등 문예작품

□ 보낼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 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 保險

1985/ 봄호
계간/비 매 품

〈통권제25호〉

등록 / 마-827호(1973년10월11일)

발행 / 1985년 4월 1일

인쇄 / 1985년 3월 31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국보기획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